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의제21

박영숙 본위원회 국제지역협력위원회 위원장

2000년 9월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 나라의 환경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다만 출범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되고 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추구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파트너십 정신이 계획 단계에서 배제됨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위원회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의 통합적으로 정책화하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추진, 감시 그리고 평가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원회가 우선해야 하는 과제는 국가의 제와 지방의제, 광역의제와 기초의제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부처와 부처간의 통합 정책 견인, 사회 각 부문의 협력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앞서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제에 힘입어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21을 수립하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 2000년 6월 16일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에 앞서 1999년 9월에 개최된 전국지방의제21워크샵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기도 하다.

이 위원회의 구성계획부터 파트너십을 발휘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긴밀한 연대속에서 위원회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거쳐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개발하여 활동을 전개했다면 이제 2년간의 임기를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규정 제2조에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는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작동체계가 불분명한데서 이 위원회는 정부의 행정체계에서 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기까지 하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상의 기능과 유사

한 기능을 가진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어 있는 환경보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다.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환경계획, 환경보전 정책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입안과 조정 등의 검토를 담당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두 기구의 차이가 있다면 각 위원회의 의장이 한쪽은 국무총리인 반면 다른쪽은 민간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혼선은 기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의제21국가실천계획이 있는가하면 '95 환경비전21' '96 대통령의 환경복지 선언' '2000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등이 별개의 지속가능발전 지침으로 선포되고 있는데서 빚어지는 난맥상이 성과를 공허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제1기의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2기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와 행동계획의 통합과 일원화는 가능한가, 아니면 위원회의 기능은 특화시켜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추진의 제도화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긴급하다. 금번 개최예정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도 의제21의 실천에 있을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유념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의제21

박영숙 본위원회 국제지역협력위원회 위원장

2000년 9월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 나라의 환경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데에 이의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1기 위원회의 2년 임기중 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가 제자리를 굳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류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은 위원회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이 위원회가 명실 공히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성장,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정책화하는 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위원회의 재정보는 불가피하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정부의 행정체제에 접목되지 못한 채 걸돌고 있을 뿐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기까지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 규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인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임기 중반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 위원회의 이 기능을 적극 추진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생각 수 밖에 없다.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환경계획, 환경보전 정책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의 입안과 조정 등의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므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두 위원회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원회의 또 하나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중점의제로 하여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국가의제와 지방의제, 광역의제와 기초의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및 이행성과 평가를 하는 한편 정부의 부처 또는 부처간의 통합정책 견인, 그리고 사회 각 부문간의 협력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총248개 자치체중 222개(89.5%)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6월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수립한 의제21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런 뜻에서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위원회의 2002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구성과 지방의제21추진 제도화 방안이 의결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오는 8월말에서 9월초에 걸쳐 개최예정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직후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우선해야 하는 임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제21의 실천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WSSD의 국가준비위원회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요구되는 것은 제2기 위원회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제1기에서처럼 표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 신 : 박영숙 위원님

원 고 청 탁 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창간된 우리 위원회 뉴스레터 「지속가능발전(PCSD Newsletter)」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2호(6월 17일 발행예정)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글을 심고자합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글은 저희 위원회의 뉴스레터 발행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요그룹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수 : 2천500여부).

수 신 : 박영숙 위원님

원고 청탁 내용

원 고 청 탁 서

1. 목 차 : 칼럼
2. 제 목 : (자유)

3. 내 용 :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관련 제언
4. 분 량 : A4용지 1장 (글자 11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5. 마 감 : 2002년 5월 30일 선생님께 글을 심고자합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글은 저희
6. 연락처 및 보내실곳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TEL : 02-385-7600, FAX : 02-388-7986

E-mail : pcsd@pcsd.go.kr

7. 원고료 : 70,000원 우리나라 주요그룹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수 : 2천500여부).

원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편집위원회

1. 목 차 : (자유)
2. 제 목 : (자유)
3. 내 용 :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관련 제언
4. 분 량 : A4용지 1장 (글자 11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5. 마 감 : 2002년 5월 30일
6. 연락처 및 보내실곳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TEL : 02-385-7600, FAX : 02-388-7986
E-mail : pcsd@pcsd.go.kr